

만남

2020년 8월
통권 187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박 철 현 미카엘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 일관성 있는 자세-----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4
교리	신앙 산책-----	7
기도하는 삶	-----	10
지혜로운 삶	-----	12
영적 상담	-----	14
나눔	-----	16
알림	-----	17
축일을 축하합니다	-----	18
전례	-----	19
공동체 소식, 지방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8월 기도지향》

❖ 보편 지향 : 삶의 터전인 바다

선원과 어부와 그 가족들을 포함하여 바다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관성 있는 자세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내가 계획을 세우기는 하지만, 이 계획은 내게 실현되지 않을 걸?’ 하고 생각할까요?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그 어떤 일도 실현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어떠해야겠습니까?

먼저 삶에는 일관성과 투지가 있어야 합니다. 일관성이라는 말은 한가지로 꿰뚫는 성질을 뜻하는 좋은 의미이고, 투지(鬪志)라는 말은 조금 말이 격한 느낌이 있는 ‘싸우고자 하는 의지’라는 말로 권장할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람의 삶에 이 두 가지는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려면, 그저 좋은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소리를 ‘나쁜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소리로 알아들을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생각이 그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대상의 마음과 생각과도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특별한 일을 청했던 여인은 자신을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강아지’에 비교한 예수님의 말씀에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세우고 왔던 그 계획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에는 모름지기 이러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관성은 민수기에 나오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 자기들의 공동체를 분열시켰던 10명의 정탐대원들’이 가졌던 일관성과는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도 일관성이 있기는 했지만, 이런 일관성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글자로 표현되는 것이라도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세우는 계획들이 정말로 우리들의 미래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은 그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나 내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나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맺을지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들이 모여서 나와 나중의 세대가 살아갈 바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의 뜻을 대할 때 올바르게 일관성 있는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마태 14,22-33)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52장 “위험에 빠진 자에게”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주님! 저희가 두려움 없이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
- ❖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신 주님, 당신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소서.

진행자 한 분이 마태오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4 22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 23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 24 배는 이미 물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 25 예수님께서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 26 제자들은 예수님께서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 댔다.
- 27 예수님께서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 28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 29 예수님께서서 “오너라.” 하시자,



- 14 29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30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 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31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32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33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다음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인생의 파도 앞에서 주님께서 지켜 주신 경험을 했다면 나누어 주십시오.

한걸음 더 나아가기

LOVE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실은 배는 ‘밤중에’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어 그들에게 가십니다. 밤과 새벽사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를 좁히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고 겁에 질린 제자들에게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14,26)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절대 권능을 드러내시며 제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고난과 어둠, 상처와 두려움의 파도가 이는 밤바다에서 시달리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절대 권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희망과 생명과 평화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청하지 않아도 나의 현실과 아픔과 어려움을 보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배를 타고 항해하는 ‘물’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죽음을 밟고 걸어오시어 ‘밤중에’ 있던 우리를 ‘새벽에’ 부활의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움직임은 다른 아닌 죽음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종말론적인 희망 속에 시련을 이겨내야겠습니다. 주님이 다가오시어 용기를 불어넣어주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풍랑이 이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며 주님께 의탁하며 희망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불의에 저항하기를 주저하거나 용기를 잃을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마음 속 혼란과 수많은 얼굴로 다가오는 고통과 시련 앞에 걱정하거나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하십니다. 하여 역경이 없기를 바라거나 회피하지 말며, 역경 중에 흔들리지도 않고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그리고 이번 달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52장 “위험에 빠진 자에게” 2절과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1. 성모승천의 의미

광복절인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광복)된 것을 기념하는 동시에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한편으로 전 세계 가톨릭교회는 이 날을 성모 마리아의 승천을 기념하는 성모승천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1950년, 교황 비오 12세께서는 교황령, <지극히 자비하신 하느님(Munificentissimus Deus)>을 통해 “티 없이 깨끗하신 동정녀께서는 지상 생활의 여정을 마치시고, 육신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으로 올림을 받으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성모님의 승천을 믿을 교리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늘로 올림을 받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주님이시며 하느님이시므로 승천(Ascension)하신 것이지만,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하늘로 올라가신(Assumption) 것’입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한국천주교회에서는 예전에 성모 몽소승천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몽소(蒙召 : 입을(뵈을) 몽, 부를 소)는 부르심을 입은 것을 의미합니다.

성모님의 육신과 영혼의 승천에 관한 기록이 신약성서를 비롯한 초대 교회의 문헌에 직접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모승천을 믿을 교리로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이에 대해 성모님 자신의 권한과 능력 때문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성모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 안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거룩한 동정녀의 승천은 당신 아들의 부활에 특별히 참여한 것이며,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앞당겨 실현한 것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966항). 또한 성모님의 승천은 성모님께서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해 전구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성모님께서는 이 구원 임무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시어 당신의 수많은 전구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 주신다.”(교회헌장, 62항).

성모님의 승천은 단지 성모님 자신만의 영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신앙의 모범으로서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그 영광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모님의 승천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언젠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하여 예수님의 천상영광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희망의 표지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어머니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당신의 아드님께 전구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한 전구자로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혀 주고 계십니다.

2. 교회의 의미

주일 아침, 한 교우가 길을 나섭니다. 가는 길에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아는 체를 하며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라고 묻습니다. 교우는 “예, 교회 가는 길이에요.”라고 대답합니다.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야트막한 언덕에 자리 잡은 붉은 색 벽돌 건물, 고딕식으로 멋있게 잘 지어진 종탑, 교회 마당에 있는 성모님 상 앞에 고개 숙여 잠시 기도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교회 주위의 장미꽃이 유난히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말하는 것일까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자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몇 사람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져 교회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자 결국 그 교회는 시(市)에 넘어갔습니다. 시에서는 교회를 도서관으로 바꾸어 운영했으나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도서관 역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은 다시 어느 상인에게 팔렸고, 그 건물은 술을 파는 식당이 되었습니다. 자, 교회가 건물을 말한다면 그 건물로 향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냐?”는 질문 앞에 변함없이 “교회에 갑니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 대답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갑니다.”에서 “도서관에 갑니다.”로 그리고 다시 “술 마시러 식당에 갑니다.”로 바뀝니다. 식당에 가면서 교회에 간다고 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건물이 곧 교회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교회일까요?

국어로 교회(敎會)는 가르칠 교(敎)와 모일 회(會)를 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는 라틴 말 Ecclesia(에클레시아)를 번역한 것인데, 이 단어는 그리스 말 ek-kalein(엑-칼레인) ‘밖으로 부른다.’에서 나온 것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751항). 즉, 밖으로(밖에서) 불러 모은 사람들을 교회라 한 것입니다. 그럼 누가 밖에서 부른 것인가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셨고, 이 모인 백성을 다름 아닌 교회라 부르는 것입니다(참조 : 에페 4,4;히브 3,1).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교회란 일반 사교적인 모임과 달리 하느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고, 이에 맞게 응답한 이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 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에페 4,1-3)라고 말합니다.

3. 천주교는 마리아를 믿는 종교인가요?

“천주교는 왜 마리아를 믿죠? 그거 이단 아닌가요?”

“성당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성모상이 있고 신자들은 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던데... 예수님을 믿어야지 마리아를 믿으면 되나요?”

천주교 신자들이 종종 개신교 신자들로부터 듣는 질문입니다. 천주교는 정말 성모 마리아를 믿는 종교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왜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고, 묵주의 기도를 열심히 바치고, 레지오 마리아(‘마리아의 군단’이라는 의미)에 가입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모 마리아의 특별한 위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통하여 성자 다음으로 모든 천사와 사람 위에 들어 높임을 받으신 마리아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신 지극히 거룩한 천주의 성모로서 교회에서 특별한 공경으로 당연히 존경을 받으신다.”(교회헌장, 66항).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공경은 하느님께 드리는 공경과는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그 공경은 교회 안에 언제나 있었던 그대로 온전히 독특한 것이지만, 강생하신 말씀과 똑같이 성부와 성령께 보여 드리는 흠숭의 공경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며, 또한 그 흠숭을 최대한 도와준다.”(교회헌장, 66항). 즉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드리는 흠숭과 성모님께 드리는 특별한 공경은 분명히 다른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모님께 드리는 이 공경은 성모님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느님께 드리는 흠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요리문답에서는 이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흠숭지례(欽崇之禮)는 천주를 만유(萬有) 위에 공경하여 높이는”(113항) 것으로, “성모님께는 상경지례(上敬之禮)를 드리고, 성인과 그 성해에게는 공경지례(恭敬之禮)를 드리는”(116항)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거나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은 성모님을 믿기 때문에 성모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모님을 통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이 기도는 성모님께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드리는 청원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자주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전구해 주신다.’라고 말하는데, 전구(轉求)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대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모님의 이러한 도움과 보호로 천주교 신자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따를 수 있게 됩니다.

★ 코로나를 이기는 레지오 마리아(황태종 요셉 신부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유행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빠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더구나 감염되었으나 불편함이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공포에 떨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했고 멀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실록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고 형형색색의 꽃이 빛을 발하며 춤을 추는 아름다운 봄이 찾아 왔지만 우리는 그 봄을 빼앗겼습니다. 학교가 학기를 시작하지 못해 학생들은 학교에 갈수도 없었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병에 감염되어 입원한 이들은 가족과 친구들의 방문과 격려를 받지 못했고 외로움의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병이 심해져서 삶을 마감해야 하는 이들은 자기 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마저도 빼앗긴 채 마지막 가쁜 숨을 거두었습니다. 상점들은 손님이 없자 문을 닫았고, 물건이 팔리지 않자 공장들도 멈추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많은 이들이 직장과 일터를 잃었고 그 어느 때보다 푸른 하늘이 우리 곁을 찾아왔건만 우리에게 그 하늘이 노랗게 보일뿐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오랜 전통까지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습니다.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엄하게 선포되던 주님의 복음을 더 이상 듣지 못하였고, 새로운 삶의 천상 양식인 성체를 모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오던 신자들에게는 미사에 함께하지 못하는 삶은 그 무엇과도 비견될 수 없는 슬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신부님 홀로 미사를 봉헌하는 성전 뒤편에 한 신자가 혼자 마스크를 쓰고 들어와 앉아서 미사가 끝날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울다가 나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치 굶주린 자식이 밥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부모가 자신은 밥을 먹으면서 자녀에게는 밥을 주지 못하는 심정이 이러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이나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도 어떻게든 레지오 주회만큼은 빠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던 많은 레지오 단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다행히 신속하게 레지아에서 감염

증 전염을 막으면서도 주회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대처를 했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로 이루어진 브레시디움에서는 오프라인 주회가 불가능했고 온라인 주회 역시도 힘들었습니다. 단원수가 적고 그나마 연세가 많으신 분들로 이루어졌던 브레시디움은 결국 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같은 삶으로는 되돌아 갈 수 없고, 올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다시 감염증의 대유행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멀지 않아 새로운 형태의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도 온라인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미사도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과 사람이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이 사람들이 직접 만나 악수를 나누고 함께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으며 서로 간의 숨결을 느끼는 만남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영상으로 미사를 보는 것이 직접 미사에 참여하여 함께 성가를 부르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제단 앞으로 나아가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에 앞서서 차분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생태학자들과 기후학자들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세계적인 전염병의 확산은 지구의 생태 환경의 변화, 특별히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원을 다 끌어다가 남들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팔아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먹고 마시고 놀면서 즐기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우리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너희들의 날수가 다 찼으니 살고 싶거든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으로 회개하라는 하느님의 간곡한 요청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의 삶을 멈추고 잣대 미 위에서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하느님 앞에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지구엔 인간이 바이러스이고 코로나가 백신이다.’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인간만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은 곧 모든 생명들이 우리의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이신 지구의 품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형제님 자매님으로 대하는 새로운 삶의 출발에 우리 레지오 단원들이 선봉에 서야 합니다.

★ 하느님 얼굴 찾기(황보경 교회의 마리아 체칠리아 수녀님)

봉쇄 수녀들의 삶은 24시간 ‘하느님 얼굴 찾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례 기도, 침묵 기도, 묵주 기도 등 하루의 삼분의 일이 하느님을 찾는 기도 시간이지만 노동, 레크리에이션, 공부, 독서, 수업, 공동체 나눔 시간도 결국 ‘하느님 얼굴 찾기’라는 우리 삶의 유일한 표적을 향해 있습니다.

봉쇄에서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답답하지 않은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 오는 분이 많고, 하루 종일 그 안에서 기도만 하면서 뭐가 바쁘냐고 하는 이들도 있는데, 실제 우리네 관상 생활은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매우 역동적입니다.

날마다 같은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지만, 한 해 전례 주기의 흐름에 따라 우리 마음과 생활은 교회와 하나 되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관상 수녀들의 기도와 희생의 삶,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느님과 맺는 관계에 대한 교회와 신자들의 신뢰는 실로 대단합니다.

우리 수도원 벗님들 중에 오이 농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수녀님, 제가 보험을 들려고 가는 길이었는데 마음을 바꿨어요. 하느님께 보험을 드는 것이 제일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험금을 수녀원으로 부치기로 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느님의 보험’이 되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수녀들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하느님 얼굴 찾기’는 결코 봉쇄 수녀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의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절대자, 곧 하느님을 찾는 갈망이 마음속 깊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고백록」에서 “주님, 주님을 위하여 저희를 내셨기에, 주님 안에 쉬기까지는 저희 마음이 찹찹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느님 얼굴 찾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태중부터 신자였던 나는 어릴 적에 아버지요 보호자로서의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부모님의 신앙 교육도 한몫을 했는데, 어머니는 달리기를 못하는 우리들에게 수호천사가 옆에서 함께 뛰라고 격려해 주셨고, 내가 술집이나 노래방 등 경건치 못한 장소에 가면 예수님과 수호천사가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애타게 기다리신다며 걱정하셨습니다. 학교는 결석할 수 있으나 주일 미사와 주일 학교는 거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느님께서는 모습을 바꾸시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연인의 얼굴로 나를 끌어당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모두가 빨간 셔츠를 입고 목청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치며 전국을 들끓게 했던 2002년 월드컵, 주님은 나의 동생들을 신학교로, 봉쇄 수녀원으로 부르셨고, 만이면서 가장 방탕아였던 나를 마지막으로 잡아채셨습니다.

‘봉쇄 수녀’ 하면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는 분이 많은데, 우리는 모두 놀라우리만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말괄량이에 더 가깝습니다. 나도 학창 시절의 별명이 ‘털파리’였고 노는 데나 공부하는 데는 알아줬지만 조용히 앉아 명상하는 것에는 재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상 생활을 하게 되었냐구요? 본당과 대학 시절, 가톨릭 동아리 활동에 열성을 올리면서 만난 ‘파스카 청년성서모임’에서 말씀에 맛들이고 깊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발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밭에 묻힌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마태 13,44 참조)’. 내가 본 그 보물은, 하느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하느님께 내 전부를 바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한 샤를르 드 푸코처럼 다른 길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관상 생활, 봉쇄로 부르심은 너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만난 지 500일째 되던 날 500송이 장미를 바치며 세레나데를 불러 주던 너무나 착한 내 남자 친구와 헤어져야 하나? 벌써 4년 동안 힘들게 공부해 온 의학도의 길도 접어야 하나? 세상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는데.’ 물론 이런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기 전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 고민하던 어느 날, 성체 앞에서 내적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고쳐 놓으면 그는 다시 병들고 죽겠지만,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투신한다면, 그는 영원히 살 것이다.’

“조금 남았으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가라.”고 권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수도 생활에 실패하면 언제든지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뜻 같았습니다. 그러나 앞뒤 살피지 않고 순진한 마음으로 맡기고 뛰어드는 것이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에누리 없이 응답하고자 진실히 갈망하게 되면 타협이란 없습니다.

입회하던 날, 그해의 첫 눈이 내렸습니다. 그 깨끗하고 차가운 눈송이와 함께 나는 세상과 결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느님의 얼굴을 찾던 나는 이제 이 작은 봉쇄의 뜰 안에서 세상 모든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날마다 전례와 기도, 노동 안에서 세상 형제자매들의 삶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질문

마음을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하주원 마리아 박사님(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우리 마음은 그야말로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문득 수십 년 전의 안 좋은 일이 떠올라, 불현듯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분이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낮에 있었던 모임에서 친구가 툭 던진 말이 기분 나빠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라고 곱씹으며 씹으며 잠을 못 자는 분도 있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친구 걱정, 내 몸 걱정 등 미래에 대한 갖가지 걱정을 하느라 실제로 내 앞에 닥친 일은 제대로 하지 않기도 합니다. 머리가 생각으로 꽉 차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을 비울 수 있죠?”라든가,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할 방법을 구합니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에는 안 좋은 기억을 잊어버리게 해 주는 약도 없고, 생각을 덜 할 수 있게 해주는 치료도 없기 때문에 저는 참 난처합니다. 물론, 노력을 해서 잊을 수 있거나 “생각하지 말자.” 해서 되는 일이면 그보다 좋은 것도 없지만 그러기에는 마음속 상처가 깊고 삶이 참 무겁습니다.

뇌과학과 정신건강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째로 두뇌의 활성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원래 생각과 그에 따르는 몸의 반응은 자율 신경, 즉 자기 마음대로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식은땀을 나게 하고,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신경을 통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비우는 것은 수도하는 분들만 할 수 있는 고난도의 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안 좋은 생각에서 허덕여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양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100만كم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10만كم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100만كم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더 배려하고, 일을 할 때도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등 섬세한 면이 있겠지만, 평소 걱정이 많고 예민해서 같은 난관에 부딪쳐도 머리가 아프도록 고민하고, 지나간 기억까지 꺼내 보며 힘들어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타고난 기질을 버리고 10만كم만 생각하는 상태로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방법은 90만كم을 다른 것으로 채워서 겨우 10만كم만 생각하는 상태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 뇌는 100 전부를 생각하는 데 씁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서 걷다 보면 생각만 100을 하던 우리 뇌는 80을 생각하는 데 쓰고, 15를 걷는 데 쓰고 5를 주위를 둘러보는 데 쓸 것입니다. 즉, 몸이 힘들면 앉거나 누워서 쉬는 것과 반대로, 뇌가 힘들면 걷고 음악을 듣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등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하루 종일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당연히 몸도 처지고 안 좋은 기억이 많이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저는 평신도라 기도하는 법을 가르칠 입장은 아니지만,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을 때 “우리 애 이번에는 시험 붙게 해 주세요.”, 또는 “남편이 술 마시지 않고 일찍 들어오게 해 주세요.”와 같이 내 고민이 묻어 있는 바람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되새김질과 걱정을 더 부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묵주기도나 성경 읽기 등을 통해 그 내용에 대해 묵상하거나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느님과 대화하는 게 마음 건강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내 욕심을 버리고 그 자리를 하느님께 내어 드리는 것도, 결국은 가만히 앉아 매번 결심만 한다고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찾고, 그 의미를 이웃들과 나누는 행동이, 즉 뇌를 세상 시름에서 쉬게 해 주는 매일매일이 쌓여서 이룰 수 있는 관계가 아닐까 합니다.

생각은 억누를수록 더욱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눈을 감고, 분홍색 코끼리에 대해서 1분만 생각하지 말아 보세요. 아마도 평소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던 분홍색 코끼리가 계속 떠오를 것입니다. 내 삶에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본적도 없는 분홍색 코끼리조차 ‘생각하지 말자.’고 결심하기 시작하면 자꾸 떠오르는데, 내가 상처받은 일이나 눈앞에 닥친 걱정이 어떻게 억누른다고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줄이려는 시도가 잘 안 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나쁜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 말씀, 기도, 잠시라도 행복을 불러일으키는 활동,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을 통해 나쁜 생각이 있던 자리를 채워 버리자는 것입니다. 힘들 때는 왜 나는 생각이 많은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한숨이 나오겠지만, 삶 전체를 돌아보면 생각이 많은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뭘 못했거나 앞으로도 잘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버리고 오늘에 충실하면서 우리 뇌, 우리 마음을 조금만 쉬게 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하느님 사랑은 곧 나의 행복(최영숙 테레사)

세상에서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고 얻고 싶은 것은 행복이며
갖고 싶은 것은 건강이라고 했는데 곧 우리의 희망이 아닐까?



사랑은 위대한 힘과 생명을 낳고 행복은 기쁨과 웃음을 주며
사는 동안 사랑의 끈과 행복의 줄을 두 손에 꼭 쥐고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고 마음으로 느끼지 못해 꽃잎처럼 떨어지고
행복은 내 마음속에 숨어서 나만이 느낄 수 있는 주님의 축복.

내가 행복해지려면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만 하고
내 안에 함께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잘 모시고 나를 사랑하면
가족도 이웃도 세상도 자연도 진정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사랑과 행복은 내가 만들고 싶다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은 주님의 손길과 발길에 따라 이루어지며
나날이 주님의 손길과 발길을 따라 기쁘게 살면 행복해진다.

얼굴엔 꽃 피우고 마음엔 열매 맺으며 가슴엔 사랑 가득 담고서
이웃과 손을 잡고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함께 잘 살아간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자비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까?



사랑은 티 없는 미의 완성으로 심장의 고통에서 뿌리는 눈물
행복은 흠 없는 선의 헌신으로 마음의 샘터에서 흐르는 기쁨
사랑과 행복은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얻어지는 은총의 선물.

하느님을 찾는 마음이 곧 사랑의 시작으로 행복의 문을 열고
예수님 성심을 헤아리다 사랑을 배우고 행복을 느끼게 되며
성모님 품에서 묵주기도로 하느님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된다.



오늘도 끝없는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보답해 드릴 것이 없어서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침에 눈을 뜨면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항상 고마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기도 드리면서 귀를 기울인다.

자연 사랑이 곧 나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곧 하느님 사랑이며
하느님 사랑이 곧 나의 행복이니 더 사랑해서 더 행복하자!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50주년 기념행사 준비

존경하고 사랑하는 본당 및 지방공동체 형제자매님들과 더불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올 수 있었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들의 만남은 벌써 50년이란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2021년도에 우리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행사를 다음과 같이 준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사 내용 *

- 1) 기념미사(15시) : 날짜는 아직 미정, 함부르크 대교구 주교좌성당
- 2) 사진전시회 및 식사 : 주교좌성당 대강당
- 3) 음악회 : 함부르크 대교구 주교좌성당
- 4)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50주년 기념 책자 발간



* 행사 준비 담당 *

- 1) 기념 미사 : 주임신부님, 회장님, 전례분과.
- 2) 사진전시회 : 최장용(레오),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이동훈(노엘), 박성아(베로니카)
- 3) 음악회 : 김성윤(마르코), 김한솔나(리드비나)
- 4) 50주년 기념 책자 발행 : 김진호(프란치스코), 전우연(아네스), 허채열(크리스티안), 정명옥(살로메)

* 협조 사항 *



상기와 같이 5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면서 교형자매님들께 도움을 청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로 함께하는 행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1) 각 개인이나 가정에서 50주년 기념이 될 수 있는 사진들.
- 2) 개인들의 시, 수필, 신앙체험 등 그 외에 좋은 추억의 글들.
- 3) 5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자유기도를 전 신자분들께 청합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성당 기도모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 준비 위원장 허길조(안드레아) Tel. 5553441

❖ 8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리디아	손 수 민			현 영 애
8일	도미니코	김 대 현	18일	헬레나	이 미 용
		김 치 수			백(이)영자
		배 성 우			윤 혜 진
	도미니카	심(김)선옥	23일	로사	최 종 금
10일	라우렌시오	우 동 천		필립	해준 Heifler
11일	수산나	노 정 자 서 수 진	24일	바르톨로메오	남궁춘배
15일	마리아	정 마리아 김 춘 옥	27일	모니카	손 수 희 윤 예 진
18일	클라우디아	김(이)영희 이 지 연	28일	아우구스티노	이 석 우 이 철 우

❖ 8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마리아	김일자(B) 황치숙(B)	18일	글라라	전영웅(H)
10일	테레사	고희지(B)		헬레나	박선자(H) 설윤자(O)
11일	수산나	강민정(B)	22일	셀리나	김신자(H) 김세린(H)
	알레나	배 알레나(B)	23일	로사	정지연(H) 최 랑(O) 백일순(H)
	마리 스텔라	정은찬(H)	27일	모니카	임소영(O)
15일	스텔라 마리 스텔라	부지우(O) 강주희(H) 김세담(H)	28일	아우구스티누스	서선영(B) 고찬연(B)



❖ 8월 성가번호 ❖

8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2일	2	513	178	4
9일	329	219	151	6
15일	259	215	165	254
16일	337	220	174	48
23일	21	217	180	29
30일	26	210	167	426

❖ 8월 미사 전례 봉사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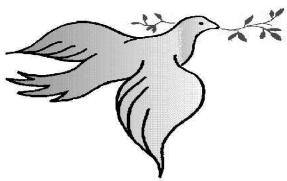
8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2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허길조(안드레아) 허명자(가밀라)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장용(레오)	X
9일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김치수(도미니코) 이영희(클라우디아)	주일학교	X
16일	청년회	청년회	청년회	X
23일	이경구(안스카) 유곡지(아네스)	한말조(마리안나) 권지연(안드레아)	주일학교	X
30일	허채열(크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나)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X



❖ Hamburg 공동체 소식

1. 8월 15일 토요일은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대축일 미사가 15시 예수 성심 성당에서 봉헌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는 국면에 있습니다. 이럴 때 모두 협조하여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2. 8월에도 꾸리아, 연령회 등의 모임은 없으며 만남성당에서의 평일미사와 레지오, 그리고 예수 성심 성당에서의 주일미사만 있겠습니다.
3. 8월에 계획된 배구대회 행사는 취소되었으며, 8월 말로 계획되었던 성령묵상회 모임도 없을 예정입니다. 또한 9월에 있을 예정이었던 전 독일 울프레아 모임도 취소되었습니다.
4. 9월에 예정되어 있던 Nacht der Kirche 행사 역시 취소되었습니다.
5. 8월에도 주일미사 후 커피 나눔은 없겠습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지방공동체 미사는 8월에도 없겠으며 9월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함부르크 공동체와 지방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위한 기도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목 협의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부회장	허명자(가밀라)
				부회장	최영숙(데레사)
				전례부장	문경영(아가다)
				총무	이정훈(요나스)
주일 학교		매월 셋째 일요일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령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비자 교리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지오 마리아	믿음의 샘 O.L.	매월 첫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자비의 도우미 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강순행(마르가리타)
	평화의 도우미 R.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도우미 R. (청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박성아(베로니카)
구역		1구역	반장	최종금(로사)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정정숙(아나벨)	
		3구역	반장	김형웅(야고보)	
			총무	이경구(안스카)	
		4구역	반장	육종인(베로니카)	
			총무	이순자(마리아)	
청년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김한솔나(리드비나)	
			부회장	황혜인(율리아)	
요셉, 마리아회		매월 둘째 수요일 오전미사 후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여성 봉사회			담당자	이정옥(크리스티나)	
				김매자(베로니카)	
				권지연(안드레아)	

8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 일	단체 행사	비고
1	토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주교 학자		
2	일	연중 제18주일		
3	월			
4	화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		
5	수			
6	목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7	금	입추		
8	토	성 도미니코 사제 기념일		
9	일	연중 제19주일		
10	월	성 라우렌시오 부제 순교자 축일		
11	화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		
12	수			
13	목			
14	금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 기념일		
15	토	성모 승천 대축일, 광복절, 말복	15시 예수 성심 성당 미사	
16	일	연중 제20주일		
17	월			
18	화			
19	수			
20	목	성 베르나르도 아빠스 학자 기념일		
21	금			
22	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		
23	일	연중 제21주일, 처서		
24	월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		
25	화			
26	수			
27	목	성녀 모니카 기념일		
28	금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 학자 기념일		
29	토	성 요한 세례자의 수난 기념일		
30	일	연중 제22주일		
31	월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철현 미카엘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박 철 현 미카엘 g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